

데스크 시각

전남도청 이전 10년, 무엇을 남겼나



장 필수
정치부장

전남도청이 109년의 광주시 광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목포로 이전한지 10년이 됐다. 전남도청 소재지는 행정구역상으로 무안군 삼향읍이다.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남악신도시가 조성됐고 남악신도시가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삼향읍으로 통합 전남본부, 전남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펼쳐져 있다. 광주 상무지구가 광주시청,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한전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그만큼 남악신도시 조성시 전남도청

이전이 핵심이었다는 얘기다. 2005년 10월 가장 먼저 이전했고 이후 도시가 조성돼 인구 4만명의 남악신도시가 됐다.

그렇다면 전남도청 이전 10년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전 찬성론자들은 목포·무안권 인구 증가와 경제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남악신도시가 목포와 무안 경계에 생기면서 인구 4만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외에 새로 유입된 인구는 거의 없다.

목포 원도심 공동화 초래

지난 10년간 무안군 인구는 2만명 늘었지만 목포시 인구는 2010년 2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2000여명씩 줄어 현재는 24만명선이 붕괴됐다. 목포 원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남악신도시로 옮겨온 것 뿐이다. 경제규모도 마찬가지로 총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윗돌 큰'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목포 원도심의 심각한 공동화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역량 하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광주 광산동 시절만 하더라도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자타가 인

정하는 '1류'였다. 스스로 광주시청 공무원을 한 단계 깔고 보는 선민의식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남악시대 10년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2류'로 전락시켰다. 이전 초창기만 하더라도 술마시다가도 찬바람을 맞으며 도청으로 되돌아와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정부 예산을 따기위해 밤샘 작업을 한후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의욕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중생활'(광주에 집을 두고 매일 출퇴근 하거나 주말에만 올라가는 것)에 지치고 이전으로 인한 비용(한달 평균 70여 만원) 부담에 서서히 의욕을 상실했다. 능력보다는 출대기 인사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손에서 일을 놓았다.

'2류'로 전락한 공무원들

10년을 지켜본 한 산하기관장의 말이 귀전을 따른다. "이전 초기만 하더라도 밤에 실국장 사무실에 불이 켜진 날이 많았지만 갈수록 줄더니 이전 불켜진 방을 보기 힘들어요. 광주에 있을때만 해도 아이디어를 구하려 오는 간부들이 많았는데 남악으로 온 뒤로는 거의 없어요"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비우면서 사는 인생



송 민 석
수필가·전 여허교 교장

오랜만에 서재 정리를 했다. 누렇게 바랜 책 냄새를 역겨워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기회다 싶었다.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어느 책을 버려야 하는가. 언젠가 그 책이 다시 필요해지는 것은 아닐까. 저자가 직접 사인까지 하여 정성껏 보내준 책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앞섰다.

이사 때마다 책을 버린다고 버려왔는데도 아직 방안에 가득하다. '월간문학', '한국수필'을 비롯한 각종 월간지와 회원들의 작품집, 통일 및 사진 관련 책자들

남쳐난다. 평소엔 서가에 들여놓지 못한 책들은 바닥에 두기 마련이다. 얼마 안 가 방바닥 여기저기 책이 쌓여간다. 청소 때마다 아내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한다. 고사성어에 한우충동(汗牛充棟)이란 말이 있다. 수레를 끄는 소가 땀을 흘리고, 대들보까지 닿을 정도로 책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책이 많아 높아 쌓여두지만 쓸모없는 책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 몇 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버려도 될 만한 책이 줄잡아 500권이 넘는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다더니 정말 가관이다.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에서부터 월남 참전 메모장, 초임교사 시절 수업준비물 등 매캐한 냄새와 함께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꼼꼼한 성격에 수집벽이 강한 탓이다. 혹시나 하여 버리지 못한 것들이다. 하지만 역시 다시 읽을 기회가 없어 상자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아저가.

서재 한편에 버려질 책들, 구입 장소와 일자가 적힌 것을 보면 한 권 한 권 이런 저런 사연들이 가득하다. 차곡차곡 추억들을 밖으로 내놓는다. '새 세대의 진로'

란 책은 가난에 찌들어 배고픈 고교 시절 감명 깊은 책 중의 하나다. 각계 명사들이 젊은이에게 주는 주옥같은 교훈이었다. 모두 내가 살아온 일생의 발자취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화도 여러 가지다. 평소엔 내가 두고했던 글들이 실린 신문과 잡지만을 따로 소중히 모아둔 상자 하나가 있었다. 10여 년 전 전근을 가는 길,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아내가 실수로 그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버린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다.

한 번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온 날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읽지 않는 전집류를 아파트 입구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날 저녁 나니 지긋한 은퇴한 목사님이 책에서 나온 것이라며 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가지고 물어 물어 찾아오는 기적도 새롭다.

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책을 다시 발견한 기쁨도 있었고, 이런 걸 왜 싸안고 있었을까 싶은 책도 있었다. 당장 필요 없는 책 중에서도 폐기할 것과 아름다운 가

게에 기증할 책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에 관한 책들은 고교 교사인 며느리에게 주려고 따로 묶어두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바닥까지 책으로 빼곡하던 방이 개운해졌다. 진중일 맘을 흘린 보람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낭비라고 하지 않던가. 서재란 학식과 사유의 깊이를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다. 돌이켜보면 읽지도 않는 제법 그럴듯한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사를 할 때다 큰 고생을 했던 지난 일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말끔해진 서가를 보니 좀 더 일찍 정리를 해야 했을 것을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결국 욕심이었다. 가뭇한 마음으로 책을 버리니 욕심도 사라졌다. 그 공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 것이라. 인생이란 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日 전범 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



김 의 현
대동고 1학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광복 70주년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적으로도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자축하는 분위기가 잇따랐다. 그러나 광복절 휴일의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정당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일본 대사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수요 집회 중 광주에 사는 80대인 최현열씨가 '잘못을 누우질 줄 모르고 사죄 한 번 없는 일본 정부'라며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 시도 뒤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전신의 40%가량이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최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은 아니었으나, 지난 2013년 5월 처음으로 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활동을 격려한 뒤 2014년 4월부터 후원회원으로 활동했다.

최씨는 언론을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소식을 접한 뒤 사무실을 찾아왔으며,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재판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법정을 찾아 재판을 지켜보는 등 평소 국권 회복과 민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의 부친은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최병수씨(작고)로, 1932년 6월 조선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한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 사건'에 참여해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형이 선고됐으나 독립유공자 추서는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에 항거하기 위해 분신이 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

으며, 최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패전 70주년 담화에서는 식민지배와 침략 등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아베 담화에 대해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는 데 그쳐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일본과의 현실적인 외교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익을 위해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담화에 대해 "따끔하게" 평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아베 총리의 두루뭉실한 사과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 속에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과거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현장에 와서 중국과 미국 등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배상과 사과를 하면서도 유독 한국 피해자들만은 '찬밥' 대우해 공분을 사온 바 있다. 지난 1966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배상했으며 개인 청구권 시효도 소멸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내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미쓰비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재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 확산을 위해 학교 단위 참여 유도 그리고 종교계 및 시민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시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광복절 연휴를 즐겼다면,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여 일제강점의 슬픈 역사를 겪어온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특히, 고령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고초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큰 활동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모임이 진행하고 있는 미쓰비시 불매운동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작은 참여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문화전당·비엔날레 '상생'이 반가운 이유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상생'이 지역의 화두로 떠올랐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문화전당에 비엔날레의 일부 전시를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부족한 문화전당 입장에서 비엔날레의 브랜드와 전시를 활용하고, 비엔날레는 문화전당 방문객들을 자연스럽게 비엔날레 전시로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두 문화기관의 윈윈전략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김일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화전당 측이 전당 내에 비엔날레 특별전 등 광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와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광주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지역색이 강하다며(문화전당 전시)부정적이었던 문화전당의 입장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부임한 방성규

전당장 직무대리 등 새롭게 구성된 문화전당 조직이 지역과의 융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실장의 발언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근래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향후 전시컨셉이 유사할 수 있는 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가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도 그럴것이 문화전당의 핵심시설인 문화창조원의 일부 콘텐츠와 비엔날레의 전시가 교류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공간은 복합전시관(문화창조원), 민주인권 평화기념관 전시실 등 모두 6곳으로, 물리적으로 비엔날레 행사를 치를 공간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상생프로젝트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다. 광주시, 비엔날레, 문화전당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양식장 적조 피해 막을 기술 개발 서둘러야

경남 거제 연안의 양식장에서 적조로 인해 수십만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해 전남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여전히 높은 밀도의 적조가 나타나고 있어 전남 지자체와 어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어수 해역은 지난 13일부터 돌산~남면~화정 해역에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m당 1000개체를 넘어지면서 적조 경보가 발령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수 돌산~고흥 염포 등지에 인력과 선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양식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양식어민들에게 알리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현재 적조경보가 내려진 어수 해역 양식어가는 386 어가, 고흥해역은 115 어가다. 이들 어가가 양식하는 사육량은 대략 3000~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적조가 확산하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해역에

서는 지난 2012년 24억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황토 살포 외에 적조를 막을 근본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적조는 바닷속에 영양염(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많이 공급돼 유독성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 함에 따라 바닷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적조가 어패류를 폐죽을 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라는 것이다. 적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생활수질, 공장및 농·축산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 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은 환경오염이 주범인 셈이다.

적조현상은 양식장에 치명적이다. 자식처럼 키워온 어패류가 폐죽을 당해 땅과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적조가 확산 되지 않도록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제 기술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無 等 鼓

극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이 때어난 햄버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패스트푸드 맥도날드가 이란에 체인점을 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란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맥도날드가 워낙 유명한 햄버거를 미국 음식으로 여기거나 독일 함부르크가 원조인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햄버거는 몽골 사람들이 원조이고, 러시아를 거쳐 독일,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발전한 다국적 음식이다.

타타르 스테이크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민인 몽골 타타르족은 이동중에 간단히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말안장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다녔다. 생고기기는 질기지만 고기를 깔고 앉으면 이동하는 동안 고기가 부드러워져 먹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 음식은 점차 보편화되면서 '타타르 스테이크'로 알려졌다. 특히 칭기즈 칸이 몽골제국을 세울 때, 이를 전쟁용 식량으로 이용했다. 한때 몽골 지배를 받던 러시아인들은 이 스테이크를 접하게 됐고, 맛있게 먹으려는 생각 끝에 생고기에 양파와 달걀, 소금으로 양념

을 하면서 스테이크는 더욱 풍미를 지니게 됐다.

이는 다시 13세기에 독일의 가장 큰 항구인 함부르크로 전해졌다. 생고기라는 이유로 처음엔 인기가 없었으나 불에 구워먹게 되면서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만들며 팔면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됐다.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햄버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04년 열린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때였다. 박람회 식당에 손님이 몰리자 한 셰프가 스테이크를 접시에 올리지 않고 빵 사이에 끼워 팔았다. 포크나 나이프를 주지 않아도 되고, 먹기 편한데다 테이블도 차지하지 않아 편리했던 것이다. 이때 불티나게 팔렸던 햄버거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김치와 비빔밥도 국제사회에서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음식이 세계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채희중 사회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